

ACC CINEMATHEQUE

실험영화·예술영화 맘껏 즐겨요



요한 루프의 '★'(왼쪽), 멜 브루크스의 '12개의 의자'.

ACC 시네마테크 개관, 국내 미개봉작 등 상영 20일~8월 5일 '씨네 코뮌' 개막... 포럼 등 개최

영화의 다양성을 실험하고 예술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실험영화'와 영화 고유의 미학을 추구하며 작가의 주제 의식과 미적 감각에 중심을 두는 '예술영화'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ACC 시네마테크(ACC Cinematheque-이하 시네마테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석·이하 ACC)에 개관한다. 시네마테크는 ACC 라이브러리 파크에 위치한 200석 규모의 극장 3과 블랙 박스에 마련됐다.

시네마테크는 국내에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과 고전영화,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예술영화전용관 광주극장, 주로 한국의 독립영화만을 상영하는 광주독립영화관은 다르게 예술영화, 실험영화를 연구·수집하고 상영하는 기능적인 공간이다.

영상 상영, 영화 관람에서 더 나아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실험영화 작가, 큐레이터, 관객 등이 모여 실험영화와 미디어아트를 연구하고 제작하며, 동시에 유통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ACC는 '시네마테크'의 개관 프로그램으로

'씨네 코뮌(Cine Commune)'을 20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한다. '씨네 코뮌'은 개막식, 국제네트워크포럼, ACC 시네마펀드 제작발표회 및 특별 상영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일 열리는 개막식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식의 공연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일본 마키노 타카시의 3D 영상 공연 '스페이스 노이즈'로 시작된다. 이어 개막작으로 인도네시아 실험영화 감독 하피즈 라찬잘레의 다큐멘터리 필름 '깜빡이는 불빛 뒤에서'가 상영된다.

국제네트워크 포럼은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며 포럼, 상영, 필름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아마시타 코요(일본이미지포럼), 마크 토스카노(미국 아카데미필름아카이브), 리카르도 마토스 카보(포르투갈 독립큐레이터), 자비에 가르시아 바르통(벨기에 브뤼셀보자르아트센터)이 발제한다. 실험영화의 전통과 위상, 실험영화의 필름복원과 보존까지 등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다. 특히, 포럼 양일 간 오후 7시부터는 세계의 영화

제, 미술관 등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노르웨이 실험영화 감독 그렉 포프, 국내 대표 실험영화 감독 이행준과 사운드 아티스트 홍철기 등이 필름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특별 상영프로그램은 26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상영되는 요한 루프의 '★'은 올해의 국제영화제 최고 화제작으로 손꼽힌다. 교육영화, 극영화 등에 등장한 별다른 모아 편집한 작품이다. 또한 국내 처음 상영하는 '코뮌'은 1871년에 일어난 노동자 혁명운동인 파리코뮌의 상황을 실제처럼 재연한 작품이다. 지난 150여 년간 적힌 4000개의 후지산 사진을 모아 편집한 작품을 통해 후지산이 지닌 종교적 의미와 사진의 본성 등에 대해 알아보는 피오나 탄의 '어센트'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홍콩독립단편영화제, 일본이미지포럼페스티벌,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프로그램 등이 상영된다.

또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ACC시네마펀드'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된 아시아 7개 지역 10개 팀의 제작발표회가 24일 ACC 극장 3에서 열린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선착순 입장이다. 자세한 사항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01-403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고래산'

고래를 통해 본 낚선 죽음의 풍경

산수미술관 28일까지 바다혜전

서양화가 바다혜 작가가 다루는 소재는 지역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것들이다. 2015년부터 세계 난민, 아이티 지진, 전쟁, 죽어가는 동물 등에 주목했던 박 작가는 "인터넷 등을 통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모습들이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꺼려하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많았다"고 말한다.

산수미술관(관장 장민한 조선대 교수)에서 '낚선 죽음의 풍경' (28일까지)을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있는 박 작가가 이번에 화폭에 풀어놓은 작업 소재는 '고래'다. 그림 속 고래는 북극곰들의 먹이가 돼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곰들의 식사), 포클레인이 쏘아내는 모래더미에 묻혀 죽음을 맞이하거나(고래부림), 누군가에게 포획돼 자유를 잃어버린 모습(고래 산)이다.

작가는 죽어가는 고래를 통해 세상 고통에 무관심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든다. 사실적 묘사와 더불어 상상이 가미된 공간에 '죽은 고래'를 배치하고 독특한 시선으로 가상의 스토리를 만들

어내면서 사건의 심각성에 집중하고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한다.

박 작가는 '고래'가 인간의 불안과 존재론적 고민을 담고 있는 존재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불안해하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도 했다. 고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 받는 존재와 어떤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에 의해 어떻게 최악의 말바닥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는 지 그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며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재료 실험에도 열심이다. 초창기 목탄 작업을 주로 진행했던 그녀는 이번 작업에서 유화 물감을 사용하되, 두텁게 계속해서 색을 쌓는 고전적 스타일에서 벗어나 기법을 많이 사용, 목탄처럼 가장 바닥에 깔린 색들도 캔버스 위로 조금씩 색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작업했다.

박 작가는 광주 미술 담론의 활성화를 목표로 을초 개관한 산수미술관이 기획한 '도전과 실험작가' 시리즈 첫번째 주자로 초대됐다. 조선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샛פור 레타라 갤러리 초대전,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초대전을 열었다. 062-234-9789. /김미은 기자 mekim@

'다산 하피첩' 208년만에 강진 귀향

25일~9월 16일 다산기념관 전시

강진군 다산기념관은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을 맞아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다.

강진군은 208년만에 귀향하는 다산 정약용의 하피첩(보물 1683-2호)을 공개하는 특별전시회를 오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연다고 17일 밝혔다.

하피란 신부가 입던 예복을 뜻하는 말로 정약용의 부인 홍씨의 치마를 비유한 것이다.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 온 지 10년 되던 1810년 다산초당 동양에서 부인이 보내온 치마저락을 잘라 두 자식에게 전해준 하피첩이 208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어 드디어 강진으로 돌아왔다.

하피첩 서문에는 '내가 보내준 치마를 잘라 작은 첩을 만들고, 경계하는 말을 써서 두 아이에게 준다'는 글이 적혀 있다. 본문에는 마음이



집이나 삶의 태도 등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다산의 애뜻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보물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다산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감동적인 아트 영상을 준비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오찬 정식
-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1등 맛집 선정 광주대표 맛집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켰음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